

경제

목포신항 활성화 길 텃다

부두 사용료 4.7% 낮추고 화물처리 비용도 현실화

정부-민간투자자 협약 변경 합의

목포신항 민간부두 운영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협약변경을 통해 항만 사용료를 낮추고, 화물처리비용을 현실화하는 등 경쟁력 확보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목포신항관리청과 목포신항 다목적부두 3선석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기존 협약의 비현실적인 화물처리 비용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무를 축소하고 사용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 본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목포신항 다목적부두 3선석은 2004년 완공돼 현재 운영중이며

2024년까지 20년동안 정부가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존 협약 중 '화물 1톤당 처리 매 5천500원을 받는 것으로 분담'은 간주 사용료 조항이 폐지됐다. 대신 추징수입료의 90%(1선석은 80%)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한 기존 협약은 이 비율을 2016년까지는 79.43%, 이후에는 77.43%로 하향 조정하도록 변경됐다. 또 사업시행자의 책임운영수입 하한선을 50%로 새로 설정해 사업시행자가 50%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부두 이용자들이 내는 이용료를 지금보다 4.735% 낮췄다.

목포신항만 민간부두는 지난해 4월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12년 기준 수출차 1대의 경우 6만6천원을 받아야 하나 실제 대당 1만7천원을 받기 때문에 2004년 개항 이후 170억원대의 손실이 났다"며 기아자동차의 수출차량 하역을 20여일간 거부한 바 있다.

기아차는 이후 신항만 민간부두에서 정부 부두로 하역 지점을 변경했고, 현재 대한조선, 삼호중공업, GS칼텍스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 변경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고 부두 이용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목포신항만 민간부두는 지난해 4월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12년 기준 수출차 1대의 경우 6만6천원을 받아야 하나 실제 대당 1만7천원을 받기 때문에 2004년 개항 이후 170억원대의 손실이 났다"며 기아자동차의 수출차량 하역을 20여일간 거부한 바 있다.

기아차는 이후 신항만 민간부두에서 정부 부두로 하역 지점을 변경했고, 현재 대한조선, 삼호중공업, GS칼텍스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 변경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고 부두 이용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목포=이성진기자 ss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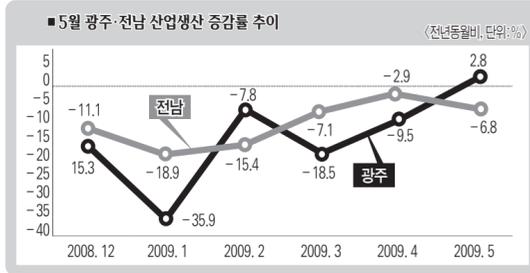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 제1공장 앞에서 파업선포식을 갖고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정취'를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제조업 경기 '롤러코스터'?

5월 생산지수 10개월만에 상승

6월 업황 BSI는 14P 하락



지난 5월 광주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반짝 상승했다.

지난달 30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5월 중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지수가 기계장비, 전자부품 등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나 올라 10개월 만에 상승반전했다. 동품은 1인당 하루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공장가동은 하루 20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게 된다. 현행 시급제를 완전월급제로 대체하는 것도 핵심 요구사항이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들어 주면 광주공장에서만 연간 6만대의 감인이 불가피한 반면, 급여는 20%이상 올려주는 꼴이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이차 광주공장 측은 "중노위의 '성실고집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 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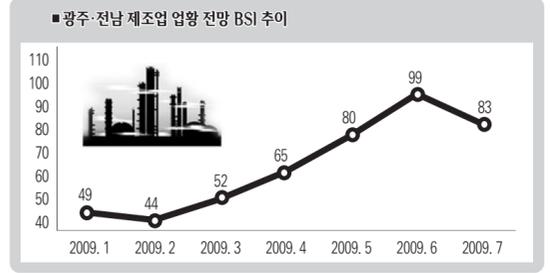
생산자제품 출하도 전년 동월대비

2.8%, 지난해에 비해 14.2%가 각각 상승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자동차,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6% 감소했지만 전 달에 비해서는 2.3% 증가했다.

전남지역의 5월 중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6.8%, 전월보다는 6.5%가 감소하면서 7개월째 하락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설비비수로 인해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1차 급속이 26.7%, 석유정제가 23.0%, 고무 및 플라스틱이 17.1%가 줄었기 때문이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낙관하 9% 감소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체감경기가 5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화학업종의 수출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반면 비제조업은 호황을 이어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매출액 20억원 이상 법인기업 319곳을 대상으로 6월 기업경기조사서를 발인 결과,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80으로 전월에 비해 14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49에서 올해 1월 41로 추락한 후 2월 44, 3월 50, 4월 76, 5월 94 등 상승세를 이어오다 5개월만에 감소로 돌아선 셈이다. 석유화학업과 석유제품 등 화학관련 업종의 5월 중 수출이 각각 19.4%와 48.6% 급감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채산성은 이렇다할 변동이 없었고, 제품판매가격과 원자재구입가격 BSI는 각각 17p, 14p 하락했다. 제조업 반면 비제조업은 호황을 보였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매출액 20억원 이상 법인기업 319곳을 대상으로 6월 기업경기조사서를 발인 결과,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80으로 전월에 비해 14p 하락했다.

7월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경우 업황, 매출은 16p, 1p 하락한 반면 신규 수주, 가동률, 생산설비수준, 채산성, 제품재고 BSI는 1~9p 상승해 전망이 엇갈렸다. 비제조업은 업황, 매출 모두 두자릿수 상승이 예상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아 노조 올 첫 부분파업

임금협상 결렬... 19년 연속파업 현실화 우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올해도 파업을 벌였다. 4시간에 그쳤으나 지난 1991년 이후 19년 연속 파업이다. 향후 급속노조의 '허투' (夏圖) 일정에 따라 총파업으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시민들의 걱정이 크다.

급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3만300명 가운데 2만7천 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9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임금협상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1만9천907명(투표자 대비 71.6%)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광주공장은 전

체 6천416명 중 6천8명(93.6%)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4천156명(69.2%)으로 가결했다.

급속노조의 '허투' (夏圖) 일정에 따라 총파업으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시민들의 걱정이 크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시행 ▲기본급 8만7천709원 인상 ▲생계비 부족분 200% + α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7차례 본교섭을 벌

여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최대쟁점은 '주간연속 2교대제'다. 현행 '10시간+10시간' 방식의 주야 교대제를 '8+8' 방식의 주간연속 2교대로 바꾸는 것으로,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은 1인당 하루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공장가동은 하루 20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게 된다. 현행 시급제를 완전월급제로 대체하는 것도 핵심 요구사항이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들어 주면 광주공장에서만 연간 6만대의 감인이 불가피한 반면, 급여는 20%이상 올려주는 꼴이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이차 광주공장 측은 "중노위의 '성실고집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 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통합 LG이노텍, LED사업 집중 육성

광주공장 활성화 기대

통합 LG이노텍이 LED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사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LG마이크론을 흡수해 1월 새 법인으로 거듭나는 LG이노텍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통합법인 출범식을 열고 2015년까지 세계 5위의 종합전자 부품회사로 도약하겠다는 장기경영 목표를 공개했다.

통합 LG이노텍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부품 사업을 해온 LG마이크론과 카메라 모듈, 디지털 튜너, 모뎀, 중소형 LCD 모듈 등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LG이노텍이 합쳐진 회사로, 광주공장에서 카메라 모듈과

LED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의 출범으로 LG그룹은 연 매출 3조원(2008년 연결기준)에 육박하는 종합부품 계열사를 거느리게 됐고, 국내 전자부품업계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양강 체제로 구도가 재편됐다.

허영호 LG이노텍 사장은 "통합법인의 출범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위상을 확고하게 인식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이노텍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면서 액정표시장치(LCD) TV용 발광다이오드(LED)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국민임대 4,421가구 공급

국토해양부는 올 3분기에 광주 첨단지구에 국민임대주택 1천908가구를 공급하는 등 광주·전남에 모두 4천421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광주의 경우 7월에 수완지구에 전용면적 39~59㎡인 국민임대주택 1천942가구를 공급하고 9월에는 첨단지구 1, 2블럭에 전용면적 36~51㎡의 국민임대 1천908가구가 공급된다. 전남에서는 순천 가곡지구에 571가구(전용면적 36~51㎡)를 8월 공급할 계획이다.

임주자격을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272만6천290원)면 신청가능하고,

전용면적 50㎡이하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194만7천350원)인 경우 우선 공급한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코스피지수	1,390.07 (+1.62)
코스닥지수	485.15 (-6.49)
금리 (국고채 3년)	4.10% (0)
원·달러 환율	1,273.90원 (-11.9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제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소재지	면적	평	총층/승	건평	최저가	비고
순천시	대196,214	592	3	2층식당건물	231	비고
순천시	대802,21387	649	23	7층, 마트, 사무	231	비고
해운대	대124,2371	109	3	5층 목욕탕	231	비고
해운대	대88,2295	897	2	4층 건물	231	비고
해운대	대150,2167	231	12	6층 근린시설	231	비고
해운대	대176,2905	287	12	5층 근린시설	231	비고
해운대	대149,21733	31	9	지중차량	231	비고
해운대	대216,2851	22	8	5층 병행	231	비고
해운대	대138,2327	12	4	정형식장	231	비고
해운대	대158,2319	7	3	5층 근린시설	231	비고
해운대	대79,2380	2	1	다구4세대	231	비고
해운대	대54,2365	1	1	다구3세대	231	비고
해운대	대60,2108	3	1	원형5세대	231	비고

경매전문회사
(주)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 전화 062)228-6600 / H.P 010-5616-8988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법원·검찰청 정문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

-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정확한 권리분석
- ▶통계자료와 시세분석에 의한 최적의 낙찰가 제시
- ▶제1,2금융권을 통한 최저금리로 부족한 경락
- ▶전금 대출입선(낙찰가의 50%~80%)
- ▶소유주, 임차인들의 신속한 명도(이사)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전국 3만여건의 경매물건 중에서 원하시는 경매물건을 찾아 무료로 상담 해드립니다.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T: 383-5221 H: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 ▶방학(대동, 투박)
 - 토차600평 건물1,350평(매가78억)
 - 보종금97억/월세3,000만원 용지12억
 - 토차500평 건물1,500평(매가85억)
 - 보종금7억/월세6,000만원(매가85억)
 - 토차590평 건물750평(매가100억)
 - 보종금40억/월세2,000만원 용지12억
- ▶토지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 (회사용 및 병원, 학원부지 등)
 - 834.5㎡(250평)-매가평당1,300만원 (월별버스 국장대 매가상 중간사거리까지)
 - 833㎡(250평)-평당1,200만원 (매년세조별주원 식당 유흥업소)
 - 611㎡(185평)-평당680만원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 ▶기타토지
 - (농장)73,000㎡(2만2천평)
 - 평당 10만원(동산)경매가차로 좋은곳
- ▶호텔/모텔
 - 상무지구 객실35개 객실(매가28억)
 - (총유주주원 보종금 3,000만/월450만원)

합금 45억 무주택
월수1억가량 모텔 및 호텔업종

맞춤주원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드리며, 정리하실만큼 팔아드립니다.
아무 때든 전화 주십시오.

대인동상일부동산
☎(TEL)223-1140, 5210 TEL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앞, 대인동 소재사건1-1번)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올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오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상명가에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상명가에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립니다.